

PP, 내수가 87만-88만원으로 인상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마진이 더 커 ... 프로필렌 가격상승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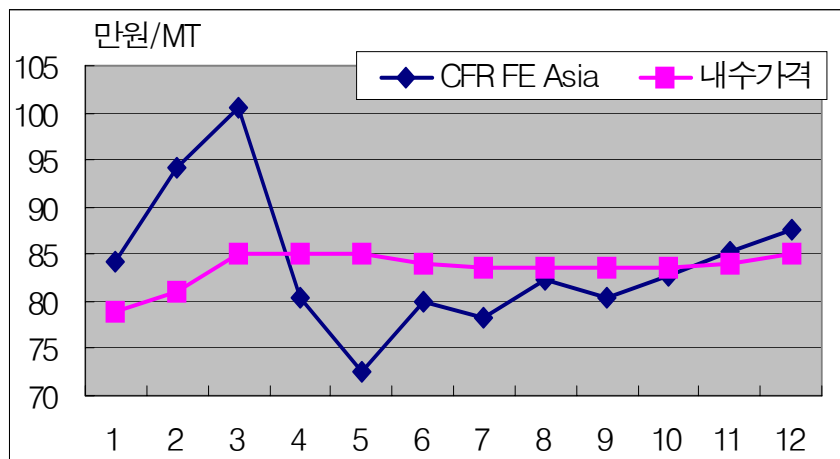
12월 톤당 84만-85만원에 거래됐던 PP(Polypropylene) Homo Raffia 그레이드 가격이 2004년 1월 톤당 87만-88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PP 생산기업 관계자는 “계속되는 Monomer 가격상승과 10월 이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에 비해 높게 고려된 점, 그리고 12월의 강보합세 등을 고려해 1월 톤당 3만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1월 원유가격 상승으로 나프타(Naphtha) 가격이 전월대비 톤당 28.9달러 상승해 프로필렌(Propylene) 가격도 27.5달러 오른 톤당 5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PP 국제가격도 CFR FE Asia Homo · Raffia 그레이드가 1월 톤당 785달러로 전월대비 49달러, Copolymer 는 30달러 인상된 815달러에 거래됐다.

PP 가격추이(2003)



PP 생산기업 관계자는 “PP 국제가격 상승은 중국의 크리스마스 특수에 따른 PP 구매가 11월부터 이루어져 비수기인 1월까지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PP 크리스마스 특수는 평균 10-11월로 2003년 미국과 유럽경기가 11월부터 회복돼 성수기가 늦어졌다는 평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재 시장회복이라는 2가지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대부분의 PP 생산기업 관계자들은 2003년 1/4분기에 맞아야 했던 PP 호황이 악재를 딛고 2003년부터 호황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PP 가격은 10월 이후 국제가격이 내수가격에 비해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연말 재고정리 등으로 12월까지 가격인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2004년 1월부터 유가 및 Naphtha 가격 폭등과 Monomer 가격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